

수시 86%, 학생부 중심 선발 지역전형 확대 속 '소신·안정' 배분

2027학년도 일반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전체 모집인원의 80.3%를 수시로 선발하는 가운데, 수시 인원의 85% 이상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나란히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 수시 27만7583명…전체의 8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5개 대학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별로 이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수시 전형은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18일까지 발표한다.

2027학년도 일반대 전체 모집인원 34만5717명 가운데 수시모집 인원은 27만7583명으로 80.3%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1735명 늘어난 규모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5만640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8만1931명, 실기·실적전형 2만1954명, 논술전형 1만2711명, 기타전형 4584명 순이다.

정원 내에서는 일반전형 13만9200명과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포함한 특별전형 10만9519명 등 총 24만8719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에서는 계약학과, 사회통합전형,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2만8864명을 모집한다.

다만 시행계획상 모집인원과 실제 대학별 모집인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수치는 의과대학 정원 505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508명으로 확정하면서 대학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수험생은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 학생부전형 85.9%…지역균형·지역인재 확대

올해 수시모집의 중심은 학생부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전년보다 908명 증가한 15만6403명, 학생부종합전형은 558명 늘어난 8만1931명을 선발한다. 두 전형을 합하면 23만8334명으로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약 85.9%

에 해당한다. 수시모집 인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을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셈이다.

학생부전형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41명, 학생부종합전형은 392명 증가했다. 논술전형도 92명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56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66명 증가했다.

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줄었다. 수도권 대학에서 전년보다 234명, 비수도권 대학에서 473명 감소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확대됐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 모집인원은 1만3872명으로 전년보다 786명 늘었다. 대학별로는 한양대가 294명 늘었고 국민대 190명 등이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만7730명으로 전년보다 952명 증가했다. 충남대가 221명 늘었고 충북대 139명, 경북대 112명, 전북대 106명, 제주대 101명 등이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반면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기회균형 모집인원은 감소했다. 2027학년도 기회균형 모집인원은 3만7324명으로 전년보다 876명 줄었다. 지역균형은 786명, 지역인재는 952명 각각 증가하면서 지역 중심 전형의 모집 규모는 확대됐다.

◆ 대학별 마감시간 달라…공동원서·전형료 결제 준비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과 전형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지만 대학별 접수 시작일과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또 시행계획 발표 이후 모집인원이 조정된 대학이 있는 만큼 지원 전 각 대학이 확정하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나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까지 가능한 한 미리 마치는 것이 좋다. 접수 완료 뒤에는 대학별 제출서류와 마감시간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유투이미지

학생부전형 서류평가 세분화… 출결·학교폭력 반영 강화



경희대학교

수시 55% 선발… 학종 서류 평가항목 6개
학교폭력 1~3호 1% 감점, 4~9호 감점 확대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5433명 중 3006명(55.3%)을 선발한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를 세분화하고 논술우수자전형 사회계열 논술 고사의 출제 방식을 개편한다. 출결과 학교폭력 조치 상황 반영도 강화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업역량에서 학업성취도 25%, 학업태도 및 탐구력 15%, 진로역량에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25%,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15%를 반영한다. 공동체역량은 협업과 소통능력·리더십 10%, 나눔과 배려·성실성과 규칙준수 10%를 반영한다.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진



로역량 대신 자기주도역량을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업성취도 30%, 학업태도 및 탐구력 30%,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40%를 반영한다. 자율·자유전공학부는 학업성

취도와 학업태도 및 탐구력을 각각 50% 반영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면접평가는 평가위원 2인과 지원자 1인이 참여하는 2대1 방식으로 지원자 1

인당 약 10분간 진행한다. 별도의 제시문이나 공통 출제문항 없이 제출서류 기반으로 진행하며 인성과 전공적합성을 각각 50% 평가한다.

출결과 학교폭력 조치상황 반영도 강화된다. 출결을 정량반영하는 경우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중 2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한다. 학교폭력 조치상황은 2026학년도에는 감점이 없었던 1~3호도 2027학년도부터 전형 총점에서 1% 감점한다. 4~9호도 전년 대비 감점 비율을 확대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인문·체육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학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인문·체육계와 사회계는 통합형 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 의·약학계는 수리논술 60%와 과학 논술 40%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계 논술은 기존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이고 수리논술 문항은 폐지한다. 대신 도표와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제시문 기반의 통합형 논술로 출제할 예정이다.



최진무 입학처장